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탄탄대로’

### 특별법 통과 8월 중 공포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성공 개최 위한 합동TF 구성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순천시는 최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발의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박람회 성공개최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박람회 준비·운영뿐만 아니라 사후활용까지 폭넓게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또 입장권 판매뿐만 아니라 휘장사업, 기념주화, 시설임대 및 기념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정부차원에서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해 산립정 산하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정부지원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박람회 주요 사업계획 승인, 지원사업 기획 조정 등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해 순천시와 정부부처 간 상호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조직위의 자발적인 기부금품 접수 허용, 각종 부담금의 감면, 박람회 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벌칙조항, 조직위원회 설치 등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포함됐다.

국제행사 지원 특별법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2023세만금세계스카우트 캠프 등 대규모 국제행사에만 예외적으로 제정됐다는 점에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위상을 반영한다.

소병철 의원이 지난 2월24일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6월24일 농해수위, 7월22일 법사위를 거쳐 5개월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곧 정부에 이송돼 8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순천시는 특별법 제정에 맞춰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및 관련 시설의 사후활용을 위한 유관부서 합동TF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2023년 4월부터 6개월간 순천만국가정원을 중심으로 순천시 전역에서 개최되며, 30여 개국 이상이 참가할 예정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최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박람회 성공개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순천만국가정원 전경. <순천시 제공>

## 전기충전시설 실태 조사 광양시, 공공기관·주택 등

광양시가 공공기관, 공동주택 등 전기차 이용자 증가에 따라 전기충전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를 3주간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전기충전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와 시설물의 적정 설치, 일반차량 불법주차 등 충전시설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수리가 필요한 사항은 시설물 관리자에게 신속히 조치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조사결과를 통해 공용 전기충전기 고장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운영 관리상 미흡사항은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 이용을 증대를 위해 올해 6월까지 전기차 566대(승용 429, 화물 132, 버스 5)에 108억2100만원을 지원했고, 전기차 보급률에 맞춰 전기충전시설 201기(급속 38, 완속 163)를 운영 중이다, 올해 비공용 완속충전기 108개를 지원한다.

김재희 광양시 환경과장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로 확대 전환을 통해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코로나 확산에 여수시 ‘긴급 이동 멈춤’

### 8월 1일까지 공공시설·낭만포차 운영 중지...해수욕장 오후 6시 이후 폐쇄

여수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함에 따라 오는 8월 1일까지 일주일간 긴급 이동멈춤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난 한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는 10.28명으로 4단계 기준인 11.2명이 거의 임박해 있다”며 “많은 불편과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는 4단계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현행 거리두기 3단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일주일간 긴급 이동멈춤 주장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권 시장은 “우리 시는 지난 5월 17일부터 23일까지 1차 긴급 이동 멈춤을 통해 확진자를 초기에 차단했던 경험이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긴급 이동멈춤 주장은 낭만포차 운영을 중지하고 해수욕장은 오후 6시 이후 폐쇄한다”며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도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여수에서는 해외유입 27명을 포함해 355명의 확

진자가 발생했는데 이달에만 134명이 확진됐다. 최근에는 유흥업소와 요가학원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여수시는 유흥업소발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지난 23일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일제 검사 행정명령을 내리고, 해당 시설 방문자에 대해서도 전수검사를 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곡성군, 소상공인 안심콜 무료 지원

곡성군이 코로나19확산방지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안심콜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안심콜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해당 지역(업소)에 대한 방문기록을 간편하게 남기는 서비스다.

방문 명부 수기 작성에 따른 불편함을 줄이고,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추가 확진자 발생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안심콜의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안심콜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비용 때문이다.

방문객이 안심콜을 사용하면 사업주에게 1건

당 4.82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큰 비용은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군은 6월부터 소상공인들에게 안심콜(080)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회선 1000개를 확보하고 소상공인들이 신청하면 회선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지역 소상공인이라면 읍면 사무소를 통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곡성군 관계자는 “안심콜 서비스가 소상공인들의 출입명부 관리 부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군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심콜을 통한 출입 관리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 보성군 “폭염에서 지역민을 구하라”

### 합동 TF팀 운영...취약계층 건강관리·도로 살수차 가동 등

35도를 넘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보성군이 폭염 합동 TF팀을 운영하는 등 폭염종합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보성군은 오는 9월30일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상황 관리·폭염 대응·취약계층 지원·건강관리지원반 등 4개 팀으로 구성된 폭염 합동 TF팀을 운영하고 있다.

또 노인돌봄·사회복지사·방문보건인력·자살방재단 등으로 구성된 폭염 재난도우미를 활용, 홀로 사는 어르신 또는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확인 등 방문·전화 건강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실내 무더위 쉼터 416곳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냉방기 가동 상태, 쉼터 내 청결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보행자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각 읍·면사무소에 양심 양산대여소를 설치했다. 주요 보도 등에 설치한 기준 그늘막 7곳 이외의 스마트 그늘막 2곳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이용객이 많은 보성·별교역 앞 승강장은 냉방기가 설치된 쉼터형 버스승강장을 운영하고, 도시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도로 살수차(사진) 가동 등 폭염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 구례군, 벼 친환경단지 병해충 공동방제

### 9월까지 231농가 191ha

구례군이 오는 9월까지 지역 231농가 191ha를 대상으로 벼 친환경단지 병해충 공동방제를 추진한다.

구례군은 최근 장마가 끝나고 고온다습한 기후가 지속됨에 따라 주요 병해충인 벼멸구, 잎집무늬마름병, 도열병, 흑명나방 등의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지속적인 병해충 현장 예찰을 통해 적기 방제해 나갈 방침이다.

구례군은 2009년부터 12년째 특수시책으로 공동 방제사업을 추진했다. 1차 방제는 19일부터 20일까지, 2차는 8월 상순, 3차는 9월 상순에 실시할 계획이다. 기간 중 기상조건과 병해충 발생 정도에 따라 적기 방제시기를 조정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현재까지 벼 작황은 양호하나 고온다습한 기후가 지속됨에 따라 철저한 방제가 필요하며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돌발병해충 방제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